

# 2025년 2분기 가구의 가공식품 지출 현황과 특징<sup>1)</sup>

이계임 | 정희주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사업은 식품산업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가공·심층 분석하여 수요자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가구의 생활실태와 변동사항을 파악하고자 가계 소득과 지출을 조사·발표해 오고 있으며, 2025년 8월 29일 ‘2025년도 가계동향조사’의 2분기 조사결과 원자료(분기 월평균)를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MDIS)를 통해 발표함. 이에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은 가계동향조사 2025년 2분기 공표 자료 및 원시자료를 분석하여 가구의 식품 소비지출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정부와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통계청에서는 2025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부터 소비지출 항목 분류를 개편한 결과를 공표함<sup>2)</sup>. 식품품 및 비주류음료 항목 내 ‘건강보조식품’ 및 ‘식품가공서비스(원재료를 가공하여 식료품 및 음료로 가공받는 서비스)’ 신설 항목이 추가되고, ‘시리얼’과 ‘청량음료’는 각각 기타곡물가공품과 기타음료수 항목에서 분리되는 등 세부 분류가 조정됨. 본 웹진에서는 개편된 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2019년 이후 식품품 지출 항목을 재분석하였으므로 이전 발표 수치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기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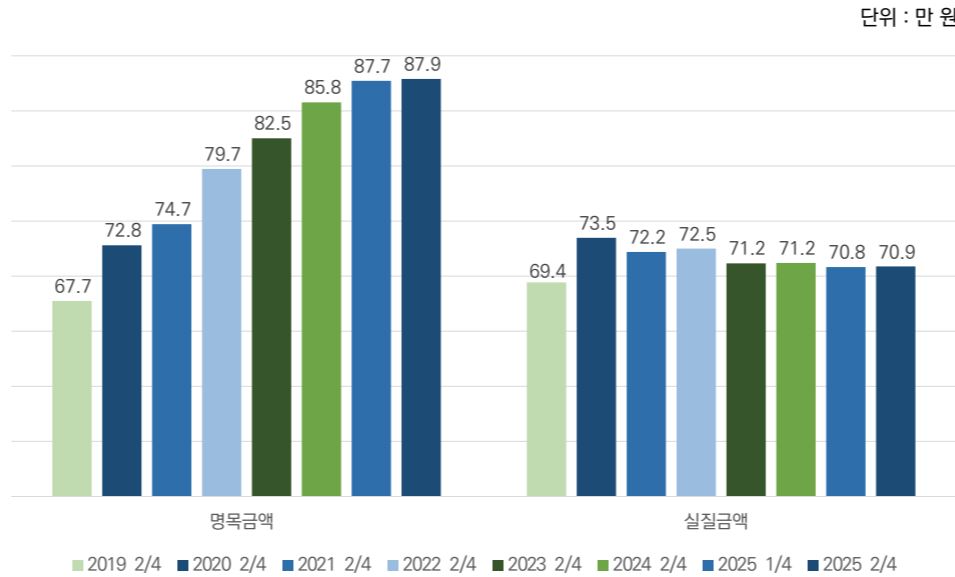
1) 본 웹진에서 활용한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의 DOI번호는 10.23333/RN.50150276.V2.2, 10.23333/RN.99990791.V1.3

2)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항목분류 설명서(2025.5)’ 참조

## 1. 2025년 2분기 가구의 식품비 지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 실질 식품비 지출액은 0.5% 하락

- 우리나라 가구의 2025년 2분기 명목 식품비(식료품·비주류음료, 주류, 식사비(이하 ‘외식비’) 지출액 포함) 지출액은 가구당 월평균 87만 9천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함.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 명목 식품비 지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5년 2분기 식품비 지출액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동기 대비 29.8% 증가함.
- 2025년 2분기 가구당 명목 월평균 식품비를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2020=100)를 기준으로 실질화한 결과, 실질 월평균 식품비는 70만 9천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0.5% 감소함. 코로나19 기간(2020년~2022년)과 비교할 경우, 실질 식품비는 1.8~3.5% 감소하였으나,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동기와 비교하면 2.1% 증가한 수준임. 2025년 2분기 가구당 실질 월평균 식품비는 이전 1분기의 70만 8천 원과는 비슷하게 유지됨.

### 가구당 2분기 월평균 식품비 지출액 추이



주 1)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의 공표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됨.  
 2) 식품비 지출액은 가계동향조사의 식품·비주류음료와 주류, 그리고 식사비(외식비)의 도합에 해당함.  
 3) 2025년부터 가계동향조사 소비지출 항목이 2019년 한국표준 목적별 개별소비지출분류(COICOP-K) 기준으로 개편됨에 따라, 2019년 이후 통계는 신분류를 기준으로 공표된 자료를 사용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2025년 2분기 소비자물가지수는 농축산물(신선식품)의 경우 1.1%, 가공식품 4.3%, 외식 3.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농축수산물의 소비자물가지수는 2024년 8%대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나, 2025년 2분기 1.1%로 크게 완화됨. 가공식품과 외식의 경우 전년 대비 각각 2.7%p, 0.3%p 증가세를 보임.

### 식품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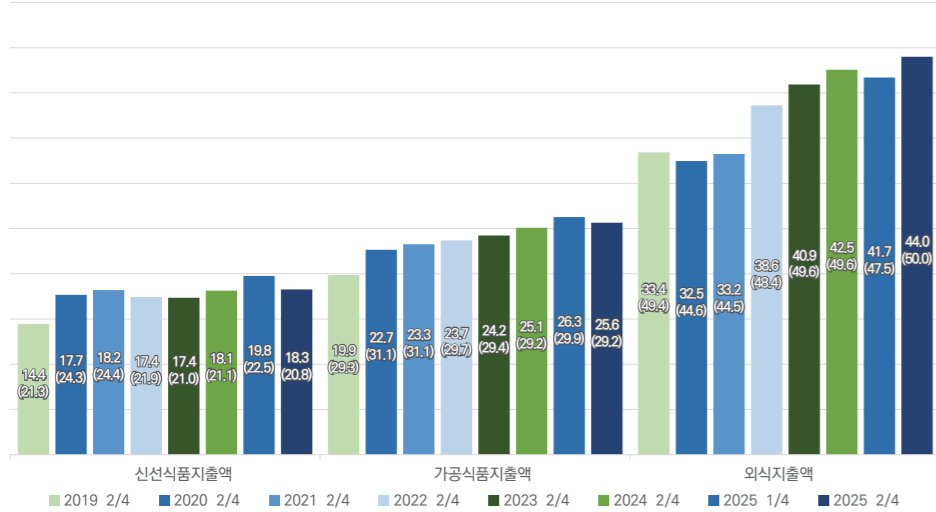
물가지수	2019 2/4	2020 2/4	2021 2/4	2022 2/4	2023 2/4	2024 2/4	2025 2/4	2분기 변화율(%)					
								'19/'20	'20/'21	'21/'22	'22/'23	'23/'24	'24/'25
농축수산물	93.41	96.72	107.66	111.48	112.06	121.65	122.93	3.5	11.3	3.5	0.5	8.6	1.1
가공식품	98.81	100.05	101.52	109.21	117.17	119.07	124.15	1.3	1.5	7.6	7.3	1.6	4.3
외식	99.19	99.83	102.29	109.81	117.32	120.76	124.57	0.6	2.5	7.4	6.8	2.9	3.2

주 1) 소비자물가지수(2020=100) 기준임.  
 2) 2023년 12월부터 소비자물가지수는 2022년 기준 가중치를 적용하여 공표하고 있음. 본 자료는 개편된 기준을 반영하여 작성됨.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조사.

- 2025년 2분기 가구의 명목 식품비를 식품 유형별로 신선식품, 가공식품, 외식으로 구분하여 월평균 지출 추이를 살펴보면, 신선식품 지출액은 18만 3천 원, 가공식품 25만 6천 원, 외식비 44만 원으로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7%, 2.2%, 3.4% 증가함. 반면, 신선식품, 가공식품, 외식비 모두 연평균 증가율이 이전 연도에 비해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특히 신선식품의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신선식품 2분기 증가율: ('23/'24) 4.5% → ('24/'25) 0.7%
  - 가공식품 2분기 증가율: ('23/'24) 3.5% → ('24/'25) 2.2%
  - 외식비 2분기 증가율: ('23/'24) 4.0% → ('24/'25) 3.4%
- 가구의 유형별 명목 식품비 중에서 외식비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2025년 2분기에 외식비 비중이 전체 식품비의 50.0%(전년 동기 대비 0.4%p 증가)로 절반을 차지하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게 됨. 한편, 신선식품 비중은 20.8%로 전년 대비 0.3%p 감소하였으며, 가공식품 비중은 전년과 동일한 29.2%를 유지함.

## 지출목적별 가구당 2분기 월평균 명목식품비 지출액 및 지출 비중 변화

단위 : 만 원, %



주 1) 신선식품 지출액은 곡물, 육류, 신선수산물, 과일, 채소, 알 및 알 가공품 지출액의 합, 가공식품 지출액은 곡물가공품, 빵 및 떡류, 육류가공품, 염건수산물, 기타수산물가공, 유제품(알 및 알 가공품 제외), 유지류, 과일가공품, 채소 가공품, 해조가공품, 당류 및 과자류, 조미식품, 기타식품, 커피 및 차, 주스 및 기타음료, 건강보조식품, 식품가공서비스, 주류 지출액의 합, 외식지출액은 식사 외식비 지출액은 외식비, 단체제공식, 주점·커피숍 지출액을 포함하는 전체 식사비 지출액임. 식품가공서비스는 이전에 가정용품·가사서비스에 포함되었던 항목의 분류가 조정된 것으로 '사업자나 기업에 의해 제공되는 식품관련 서비스로 고추가루 뽕은 샷, 기름잔 샷, 떡방아 샷, 양파즙 등 가공비용 등을 포함함.

2) 2025년 가계동향조사 분류 개편에 따라, 가공식품 지출액 항목에 건강보조식품 및 식품가공서비스 이용금액이 포함되었으며, 2019년부터의 시계열 자료에도 이를 반영한 값이 적용됨.

3) 비중은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산출, 합계가 100.0과 차이 있을 수 있음.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 2. 소득분위 1분위 가구와 가구주 연령 60대 이상 가구에서 전년 동기 대비 식품 지출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

- 2025년 2분기 가구의 소득 분위별로 월평균 명목 식품비 지출액을 비교하면 소득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는 식품비로 월평균 45만 4천 원을 지출하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식품비 지출액도 증가하여 소득 5분위(소득 상위 20%) 가구의 식품비는 월평균 137만 9천 원에 달함.
- 2025년 2분기 가구의 식품비 지출액은 모든 소득 분위에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으며, 소득 분위별로 1분위 가구의 증가율이 4.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소득 4분위와 3분위 가구가 각각 3.4%, 3.2%의 순서임. 소득 5분위 가구는 1.0% 증가로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소득 2분위 가구는 2.1%의 증가율을 나타냄.

-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2분기와 비교했을 때, 2025년 2분기에는 모든 소득 분위 가구에서 식품비 지출이 23~49%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남. 소득 1분위 가구의 지출 증가율은 48.8%로 가장 높았으며, 소득 3분위 가구는 23.0% 증가에 그쳐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함.

## 소득분위별 월평균 명목 식품비 지출액 및 변화율

단위 : 만 원, %

소득분위	2019 2/4	2020 2/4	2021 2/4	2022 2/4	2023 2/4	2024 2/4	2025 1/4	2025 2/4	2분기 변화율(%)						
									'19/'25	'20/'25	'21/'25	'22/'25	'23/'25	'24/'25	'25q1/'25q2
1분위	30.5	35.6	38.4	41.7	40.7	43.6	45.0	45.4	48.8	27.6	18.4	8.9	11.6	4.2	0.9
2분위	49.0	52.0	54.8	58.7	58.2	61.5	63.0	62.8	28.3	20.9	14.7	7.0	8.0	2.1	-0.3
3분위	68.2	69.8	71.2	77.5	80.5	81.3	85.1	83.9	23.0	20.2	17.8	8.3	4.3	3.2	-1.4
4분위	83.0	92.1	92.4	96.9	103.5	105.8	108.3	109.5	31.9	18.9	18.5	13.0	5.8	3.4	1.1
5분위	107.9	114.5	116.8	123.9	129.7	136.6	137.3	137.9	27.8	20.4	18.1	11.3	6.3	1.0	0.5

주 : 2025년 가계동향조사 분류 개편에 따라, 가공식품 지출액 항목에 건강보조식품 및 식품가공서비스 이용금액이 포함되었으며, 2019년부터의 시계열 자료에도 이를 반영한 값이 적용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 가구주 연령대별로는 가구주 연령 50대 가구에서 식품비 지출이 107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2025년 2분기에는 30대 이하 가구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전년 동기 대비 식품비 지출이 증가하였으며,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율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60대 이상 가구는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하면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그다음으로 50대 가구(4.7% 증가), 40대 가구(0.7% 증가), 30대 이하 가구(0.1% 감소) 순의 증가율을 보임.

- 가구주 연령 30대 이하 가구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명목 소득 증가율이 0.1%(전체 가구 2.1%)로 정체된 반면, 비소비지출(경상조세, 비경상재산세, 이자비용)이 8.9% 증가(전체 가구 4.3%)

- 2025년 2분기 가구주 30대 이하 가구의 전년 동기 대비 외식 지출은 0.6% 증가한 반면, 신선식품과 가공식품 지출은 각각 -0.4%, -1.7% 감소

- 2019년 2분기 대비 2025년 2분기 식품비 지출 수준은 모든 가구주 연령대에서 증가하여, 2019년 동기 대비 식품비 지출이 가장 늘어난 가구는 60대 이상 가구(46.2%)였으며, 식품비 지출 증가액을 기준으로 50대 가구가 29만 9천 원 증가하여 가장 크게 증가함.

## 가구주 연령별 월평균 명목 식품비 지출액 및 변화율

단위 : 만 원, %

연령구분	2019 2/4	2020 2/4	2021 2/4	2022 2/4	2023 2/4	2024 2/4	2025 1/4	2025 2/4	2분기 변화율(%)						
									'19/'25	'20/'25	'21/'25	'22/'25	'23/'25	'24/'25	'25q1/'25q2
30대 이하	67.1	72.3	73.3	75.6	78.1	82.1	81.3	81.9	22.2	13.4	11.8	8.3	4.9	-0.1	0.8
40대	85.2	90.7	88.7	97.5	100.8	105.8	109.0	106.6	25.1	17.6	20.2	9.3	5.7	0.7	-2.2
50대	77.1	82.1	85.0	92.5	99.4	102.1	104.6	107.0	38.7	30.2	25.9	15.6	7.6	4.7	2.3
60대 이상	48.6	54.5	59.8	62.9	64.4	67.6	71.2	71.1	46.2	30.5	18.8	13.0	10.5	5.2	-0.2

주 : 2025년 가계동향조사 분류 개편에 따라, 가공식품 지출액 항목에 건강보조식품 및 식품가공서비스 이용금액이 포함되었으며, 2019년부터의 시계열 자료에도 이를 반영한 값이 적용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 가구원수별로 2025년 2분기 가구의 식품비 지출액을 비교하면, 5인 이상 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구에서 전년 동기 대비 지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2인 가구는 84만 5천 원으로 7.6% 증가하며 가장 두드러진 증가율을 보였으며, 5인 이상 가구는 140만 1천 원으로 -1.5% 감소해 유일하게 지출이 줄어든 가구 유형으로 나타남.

-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2분기와 비교할 때, 모든 가구원수 가구의 월평균 식품비 지출액이 34~43%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그중에서도 2인 가구가 43.3% 증가하며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함.

##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식품비 지출액 및 변화율

단위 : 만 원, %

가구원수	2019 2/4	2020 2/4	2021 2/4	2022 2/4	2023 2/4	2024 2/4	2025 1/4	2025 2/4	2분기 변화율(%)						
									'19/'25	'20/'25	'21/'25	'22/'25	'23/'25	'24/'25	'25q1/'25q2
1인 가구	38.6	41.4	43.8	48.1	49.6	52.8	53.6	53.3	37.9	28.5	21.7	10.8	7.4	0.9	-0.6
2인 가구	59.0	63.1	67.4	71.4	75.4	78.5	82.7	84.5	43.3	33.9	25.5	18.4	12.2	7.6	2.2
3인 가구	83.6	88.6	93.0	99.1	104.6	109.4	116.9	116.7	39.6	31.7	25.5	17.7	11.5	6.7	-0.2
4인 가구	100.8	111.9	110.2	119.0	129.0	132.0	136.7	136.3	35.2	21.9	23.7	14.6	5.7	3.3	-0.2
5인 이상 가구	104.5	116.2	117.2	134.1	130.3	142.2	143.6	140.1	34.1	20.6	19.5	4.4	7.5	-1.5	-2.4

주 : 2025년 가계동향조사 분류 개편에 따라, 가공식품 지출액 항목에 건강보조식품 및 식품가공서비스 이용금액이 포함되었으며, 2019년부터의 시계열 자료에도 이를 반영한 값이 적용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 3. 상위 지출액 순위는 당류 및 과자류/빵 및 떡류/건강보조 식품 순서, 유지류 높은 증가율

- 2025년 2분기 가공식품 월평균 지출액을 분류별로 구분하면, 당류 및 과자류가 31만 8천 원으로 가장 많고, 빵 및 떡류(30만 3천 원), 건강보조식품(29만 4천 원), 기타식품(26만 원), 유제품(21만 2천 원) 순으로 가공식품 분류별 지출액 순위는 전년 동기와 동일함.
- 2025년 2분기 가공식품 분류별로 전년 동기 대비 가구의 월평균 지출액 증가율이 높은 품목은 유지류(31.7%), 수산가공품(7.0%), 건강보조식품(6.0%), 빵 및 떡류(4.7%), 기타식품(4.5%), 곡물가공품(3.7%), 조미식품(3.7%), 과일가공품(3.2%), 커피 및 차(1.0%) 등의 순으로 분석됨.
  - 유지류는 2025년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가정 내 유지류 사용 증가와 국제 유지류 원재료 가격 상승 등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 높은 증가율을 기록
  - 수산가공품은 2022년의 감소 추세를 벗어나 2024년 이후부터 뚜렷한 회복세
  - 식품가공서비스(원재료를 가공하여 식료품 및 음료로 가공받는 서비스)(-16.0%), 주스 및 기타음료(-8.9%), 채소가공품(-5.8%), 주류(-4.1%), 유제품(-1.0%) 품목은 지출액이 감소
-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직전에 해당하는 2019년 2분기 대비 2025년 2분기의 전체 가공식품 지출액 증가율은 29.1%로 나타났으며, 식품가공서비스 품목을 제외한 모든 세부 품목에서 지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가공식품 부류별로 지출액 증가율은 유지류(138.2%), 건강보조식품(45.5%), 육류가공품(41.6%), 빵 및 떡류(41.2%), 곡물가공품(39.3%), 조미식품(38.6%), 기타식품(38.2%), 커피 및 차(23.7%), 채소가공품(23.5%) 등의 순서
  - 상대적으로 지출액 증가율이 작았던 품목은 주스 및 기타음료(8.8%), 유제품(4.6%) 등이며, 식품가공서비스(-21.7%)는 감소

### 가공식품 분류별 월평균 지출액 변화

단위: 천 원, %

분류	2019 2/4	2020 2/4	2021 2/4	2022 2/4	2023 2/4	2024 2/4	2025 1/4	2025 2/4	2분기 변화율						
									'19/25	'20/25	'21/25	'22/25	'23/25	'24/25	'25q1/25q2
곡물가공품	15.2 (7.6)	18.5 (8.2)	17.7 (7.6)	19.0 (8.0)	19.8 (8.2)	20.4 (8.1)	21.4 (8.1)	21.1 (8.2)	39.3	14.1	19.1	11.0	6.9	3.7	-1.3
빵 및 떡류	21.5 (10.8)	23.4 (10.3)	25.4 (10.9)	26.5 (11.2)	27.4 (11.3)	28.9 (11.5)	31.7 (12.1)	30.3 (11.8)	41.2	29.3	19.3	14.4	10.6	4.7	-4.5
육류가공품	11.8 (5.9)	14.3 (6.3)	14.2 (6.1)	13.8 (5.8)	15.6 (6.4)	16.7 (6.7)	17.9 (6.8)	16.7 (6.5)	41.6	16.9	17.9	20.9	7.5	0.1	-6.4
수산가공품	14.2 (7.1)	16.3 (7.2)	15.1 (6.5)	14.7 (6.2)	16.0 (6.6)	15.1 (6.0)	20.7 (7.9)	16.2 (6.3)	14.1	-0.6	7.1	10.0	1.0	7.0	-21.8
유제품	20.2 (10.2)	21.7 (9.6)	21.5 (9.3)	20.1 (8.5)	21.1 (8.7)	21.4 (8.5)	20.5 (7.8)	21.2 (8.3)	4.6	-2.4	-1.7	5.2	0.2	-1.0	3.2
유지류	2.2 (1.1)	3.1 (1.4)	3.3 (1.4)	3.7 (1.6)	3.6 (1.5)	3.9 (1.6)	4.9 (1.9)	5.2 (2.0)	138.2	64.5	58.9	38.5	45.3	31.7	5.4
과일가공품	2.8 (1.4)	2.7 (1.2)	3.3 (1.4)	2.8 (1.2)	3.0 (1.2)	3.3 (1.3)	5.3 (2.0)	3.4 (1.3)	20.0	24.0	3.1	20.3	13.6	3.2	-35.6
채소가공품	1.8 (0.9)	2.4 (1.1)	2.3 (1.0)	2.0 (0.9)	1.9 (0.8)	2.4 (0.9)	2.4 (0.9)	2.2 (0.9)	23.5	-6.5	-1.4	10.9	15.5	-5.8	-8.6
당류 및 과자류	26.0 (13.1)	28.7 (12.7)	27.7 (11.9)	29.1 (12.3)	29.8 (12.3)	31.4 (12.5)	28.8 (11.0)	31.8 (12.4)	22.2	10.7	14.6	9.0	6.6	1.1	10.2
조미식품	8.2 (4.1)	10.6 (4.7)	11.0 (4.7)	9.6 (4.0)	11.7 (4.8)	10.9 (4.4)	11.5 (4.4)	11.3 (4.4)	38.6	7.1	3.2	18.4	-3.0	3.7	-1.3
기타식품	18.8 (9.5)	21.4 (9.4)	23.5 (10.1)	23.8 (10.1)	24.4 (10.1)	24.9 (9.9)	27.5 (10.5)	26.0 (10.1)	38.2	21.7	10.5	9.1	6.7	4.5	-5.6
커피 및 차	7.9 (4.0)	9.0 (4.0)	9.1 (3.9)	9.4 (4.0)	9.4 (3.9)	9.7 (3.9)	10.0 (3.8)	9.8 (3.8)	23.7	8.2	7.8	4.3	4.4	1.0	-2.7
주스 및 기타음료	14.0 (7.0)	15.1 (6.7)	15.2 (6.6)	15.7 (6.6)	14.9 (6.2)	16.7 (6.6)	13.8 (5.3)	15.2 (5.9)	8.8	0.4	-0.4	-3.0	1.7	-8.9	10.1
건강보조식품	20.2 (10.2)	22.9 (10.1)	26.1 (11.2)	28.9 (12.2)	26.1 (10.8)	27.8 (11.1)	29.5 (11.2)	29.4 (11.5)	45.5	28.7	12.9	1.8	12.8	6.0	-0.3
식품가공서비스	0.5 (0.2)	0.6 (0.3)	0.4 (0.2)	0.4 (0.2)	0.5 (0.2)	0.4 (0.2)	0.4 (0.2)	0.4 (0.1)	-21.7	-38.4	-9.8	-13.4	-26.6	-16.0	-15.5
주류	13.5 (6.8)	15.9 (7.0)	17.0 (7.3)	17.3 (7.3)	17.3 (7.1)	17.1 (6.8)	16.3 (6.2)	16.4 (6.4)	20.8	3.2	-3.7	-5.5	-5.2	-4.1	0.2
전체	198.7 (100.0)	226.5 (100.0)	232.7 (100.0)	236.9 (100.0)	242.3 (100.0)	250.9 (100.0)	262.7 (100.0)	256.4 (100.0)	29.1	13.2	10.2	8.3	5.8	2.2	-2.4

주 1) 명목금액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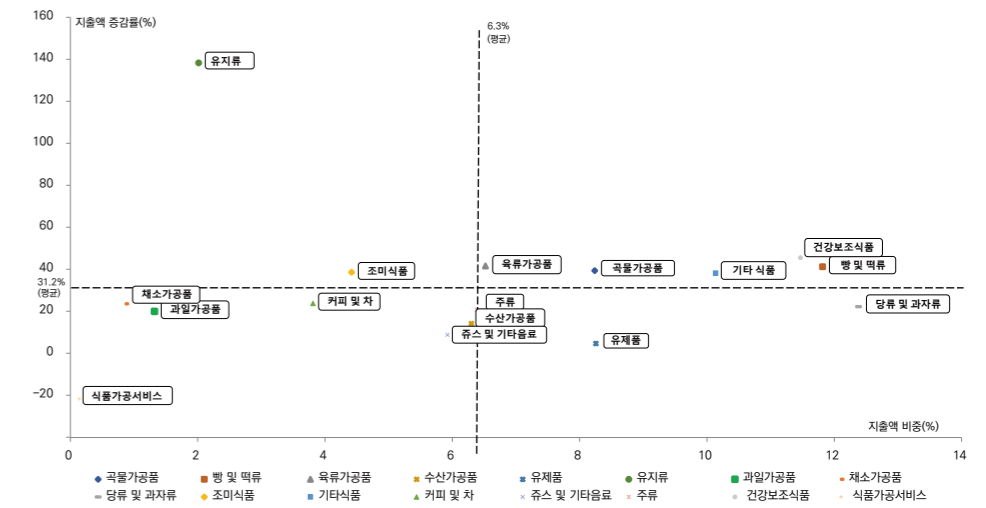
2) 곡물가공품, 빵 및 떡류, 육류가공품, 유지류, 당류 및 과자류, 조미식품, 기타식품, 커피 및 차, 주스 및 기타음료, 건강보조식품, 식품가공서비스, 주류 지출액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공표자료를, 수산가공품, 유제품, 과일가공품, 채소가공품 지출액은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를 활용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 2025년 2분기 가공식품 분류별로 지출비중이 크고 2019년 2분기 대비 높은 지출액 증가율을 나타낸 분류는 건강보조식품(45.5%), 육류가공품(41.6%), 빵 및 떡류(41.2%), 곡물가공품(39.3%), 기타식품(38.2%)으로 분석됨. 유지류(138.2%)와 조미식품(38.6%)은 상대적으로 지출비중이 작지만 증가율은 높은 분류임.
  - 당류 및 과자류와 유제품은 지출비중이 높지만 지출액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채소가공품/과일가공품/커피 및 차는 지출비중이 작고 지출액 증가율이 평균 이하인 분류,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커피 및 차 수요에도 불구하고 지출액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외식 시장 및 배달·테이크아웃 확대의 영향으로 가정 내 지출이 대체되었기 때문

- 식품가공서비스는 지출비중도 작고 지출액이 감소한 분류로 소비자의 편의성 및 다양성 추구 경향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출 감소 전망

### 2019년 2분기 대비 2025년 2분기 가공식품 분류별 지출액 비중 및 증감률 변화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 4. 영양보조제, 식빵 및 기타빵, 한과 및 기타과자, 기타 육류 가공품은 지출액 크고 지속 증가추세, 전년 대비 증가율이 높은 품목은 기타 식물성 식용유, 김, 케이크, 치즈 등

- 2025년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지출액이 큰 품목은 '영양보조제(27만 1천 원)', '식빵 및 기타 빵(21만 3천 원)', '한과 및 기타 과자(15만 6천 원)', '기타 육류가공품(13만 2천 원)', '즉석·동결식품(10만 7천 원)' 등의 순서임.
- 지출액 상위 품목 중, 전년 동기 대비 2025년 2분기에 지출액이 크게 증가한 품목은 '기타 식물성 식용유(38.5%)', '김(14.5%)', '케이크(14.4%)', '치즈(11.2%)', '김치(8.9%)', '기타 조미식품(8.7%)' 등임. 이는 가정 내 조리 및 간편식 수요의 확대, 기호식 중심 소비의 지속적인 증가가 반영된 결과로 보임.
- 지출액 상위 품목 중에서 전년 동기 대비 2025년 2분기 지출액에서 가장 큰 감소를 보인 품목은 '기타 음료수(-13.8%)', '과일 및 야채주스(-12.3%)', '소주(-6.3%)', '생수(-6.2%)', '반찬류(-5.6%)', '맥주(-5.1%)', '우유(-4.8%)', '청량음료(-2.9%)', '사탕 및 젤리(-2.6%)', '국수(-1.9%)', '기타 육류가공품(-0.7%)' 순으로 나타남.
  - 기타 음료수(기능성음료, 이온음료, 식이음료, 분말주스 등)는 2019년 2분기~2023년 2분기까지 지출 순위 8~11위를 유지해왔으나 2024년부터 '청량음료'가 별도 분류되면서 순위가 하락, 한편 개편 이전 분류 기준(기타 음료수+청량음료)으로 통합하면 8위로 기존 순위 유지

품목	2019 2/4	2020 2/4	2021 2/4	2022 2/4	2023 2/4	2024 2/4	2025 1/4	2025 2/4	2분기 변화율						
									'19/ '25	'20/ '25	'21/ '25	'22/ '25	'23/ '25	'24/ '25	'25q1/ '25q2
영양보조제	16.3	19.2	22.7	25.9	23.5	25.3	26.3	27.1	66.7	41.6	19.7	4.7	15.4	7.1	3.0
식빵 및 기타빵	14.5	15.7	16.7	18.2	19.2	20.5	20.7	21.3	46.5	35.4	27.3	16.8	11.0	4.0	3.0
한과 및 기타과자	12.9	13.8	13.4	13.7	14.9	15.3	16.4	15.6	20.6	13.2	16.7	13.5	4.3	1.8	-5.2
기타 육류가공품	8.5	10.2	10.4	10.4	11.7	13.3	13.9	13.2	55.4	29.5	27.2	27.1	12.6	-0.7	-5.2
즉석·동결식품	8.8	9.8	10.0	10.0	10.1	10.0	11.5	10.7	22.2	9.7	6.6	7.3	5.7	6.6	-6.8
아이스크림	6.3	8.0	7.7	8.4	8.2	9.0	5.6	9.0	42.8	13.3	17.4	7.0	9.6	0.4	62.1
우유	9.9	10.3	9.6	9.4	9.4	9.3	8.7	8.9	-10.2	-13.6	-7.9	-5.6	-5.9	-4.8	2.1
맥주	7.4	8.2	8.4	8.1	7.5	8.2	7.0	7.8	5.3	-5.7	-8.1	-4.1	3.0	-5.1	10.8
반찬류	5.5	5.9	7.5	7.4	7.3	7.9	8.9	7.4	35.3	26.8	-0.4	0.6	2.5	-5.6	-16.7
커피	6.1	7.2	7.1	7.3	7.4	7.3	7.1	7.4	20.5	2.6	4.3	1.5	0.5	0.9	4.2
라면류	5.9	7.1	6.1	6.4	7.0	6.8	7.0	7.0	19.5	-0.6	15.4	9.8	-0.5	2.6	-0.6
요구르트	5.4	6.2	6.1	5.4	5.5	6.0	5.8	6.3	15.0	1.0	3.1	15.1	13.6	3.9	7.7
기타 곡물가공품	4.4	5.3	5.5	6.1	6.1	5.5	6.2	5.9	33.8	11.4	7.2	-3.4	-2.6	7.7	-4.7
떡	3.6	4.3	4.6	4.3	4.4	4.7	6.2	4.7	29.7	8.2	0.9	8.4	6.6	0.2	-24.4
케이크	3.3	3.4	4.0	3.9	3.8	3.8	4.9	4.3	30.5	28.2	7.4	9.8	13.3	14.4	-11.2
청량음료	-	-	-	-	-	4.3	3.7	4.2	-	-	-	-	-	-2.9	13.3
소주	3.7	4.6	4.5	4.4	4.2	4.1	3.9	3.8	4.0	-16.9	-15.6	-13.6	-8.7	-6.3	-0.8
과일 및 야채주스	4.2	4.9	4.6	4.3	3.7	4.4	4.0	3.8	-8.4	-22.7	-16.8	-10.7	1.9	-12.3	-4.1
김치	2.1	3.0	3.1	3.1	3.3	3.4	2.9	3.7	77.6	26.1	20.7	21.1	12.9	8.9	27.3
두부	2.4	3.0	3.2	3.3	3.4	3.5	4.2	3.7	52.7	24.6	17.1	14.7	10.4	7.1	-11.2
기타 음료수	6.9	7.0	6.9	7.7	7.7	4.3	3.1	3.7	-46.1	-46.8	-46.2	-51.8	-51.6	-13.8	19.7
생수	2.9	3.2	3.8	3.7	3.5	3.7	3.0	3.5	19.3	7.9	-7.6	-5.9	-1.6	-6.2	15.1
과일가공품	2.8	2.7	3.3	2.8	3.0	3.3	5.3	3.4	20.0	24.0	3.1	20.3	13.6	3.2	-35.6
국수류	2.0	2.5	2.3	2.7	2.6	2.9	1.9	2.9	45.8	16.6	23.4	8.3	9.3	-1.9	50.2
기타 식물성 식용유	0.9	1.3	1.3	1.9	1.7	2.0	2.6	2.8	214.4	121.5	115.1	49.5	67.0	38.5	9.6
기타 조미식품	1.7	2.5	2.5	2.2	2.2	2.4	3.0	2.6	56.4	5.2	3.9	19.7	19.4	8.7	-13.3
김	2.0	2.1	1.8	1.7	1.9	2.3	4.2	2.6	31.9	23.1	40.4	49.4	38.5	14.5	-38.4
사탕 및 젤리	1.9	2.0	2.1	2.1	2.3	2.6	2.6	2.6	33.1	31.7	25.1	23.3	13.5	-2.6	-0.1
기타 미분류식품	1.2	1.4	1.6	2.0	2.3	2.4	2.6	2.5	102.2	73.6	58.4	23.4	10.7	4.7	-3.0
치즈	1.7	2.1	2.1	1.9	2.3	2.2	2.5	2.5	48.4	19.0	19.1	31.6	7.6	11.2	0.2

주 1) 명목금액 기준임.

2) 2024년부터 '기타 음료수'에서 '청량음료'가 분리되어 개별 집계되어, 2023년 이전과의 순위 비교시 유의가 필요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 저자 정보

- 이계임 명예선임연구위원(061-820-2326), lkilki@krei.re.kr
- 정희주 연구원(061-820-2347), luire@krei.re.kr